

#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

## 결 정

대상자 김재익 감독

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곡현로 134

## 주 문

본 위원회는 항소를 제기한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#95 번 김재현에게 부과된 벌칙을 철회한다.

## 이 유

### 1. 대상자의 지위

대상자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등록된 불가스 레이싱팀 감독이다.

### 2.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의 당시 결정

해당 대회 심사위원회는 2019년 4월 28일 항소자의 팀 선수인 #95 김재현 선수 및 감독과 #10 조항우 선수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경기장에 설치된 CCTV와 대회 중계 영상을 분석하여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운영규정 38.1.1를 근거로 #95 김재현 선수에게 결승기록 +5초 가산 페널티를 판정하였다.

### 3. 적용 기준

슈퍼레이스 스포츠운영규정 제 38.1.1 코너 안쪽 차량이 바깥쪽 차량에 대한 보호 의무의 해석과 적용.

(코너 선회 시 코너 안쪽의 차량은 바깥쪽에 차량이 있을 시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, 코스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금지된다)

### 4. 판단

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대회 심사위원장, 항소자 및 법률대리인의 의견 청취와 오피셜 포스트 보고서, CCTV 영상, 중계 영상, 차량 인캠 영상 등 제출된 모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 하였다.

턴 13 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대회 심사위원회가 코너 탈출부분에서의 접촉상황에 대해 대회규정 13.1.1 위반으로 판단할 개연성은 있으나,

#95 김재현이 #10 조항우와 경합 중 턴 13 진입시 인코너를 선점하여 자기 라인을 확보하였고,

바깥쪽에 있는 #10 조항우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확신을 갖기도 어려워 본 건은 일반적인 레이스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항소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.

이 판단에 앞서 항소위원회는 항소이유서에 명시된 항소인의 주장을 살핀 결과 항소인은 턴 12 에서 “#10 차량과의 접촉으로 불이익을 당하였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해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고 항소인의 접촉에 대해서만 페널티가 부과되었다”고 하였으므로 본 항소위원회는 턴 12 상황과 턴 13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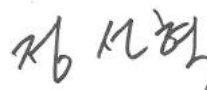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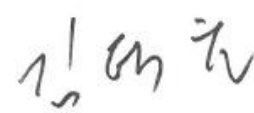


대회 심사위원회가 턴 12 상황을 대회규정 13.1.1 위반으로 판단했다면 턴 13 상황도 대회규정 13.1.1 위반으로 판단해야 하고, 턴 12 의 상황이 13.1.1

규정위반이 아니라면 턴 13 의 상황도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었을 것이며 두 상황에 대한 다른 판단은 논리적 모순이 될 수 있다.

즉, 항소인이 언급한 턴 12 와 턴 13 상황 간 벌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살핀 결과 두 선수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항소위원회의 의견이다.

2019. 5. 21.

(사)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

위원장	정 선 혁 (인)	
위 원	김 광 진 (인)	
위 원	김 덕 호 (인)	
위 원	박 정 룡 (인)	
위 원	윤 철 수 (인)	

첨부 1 (2019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회심사위원회 결정문)



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

제1전

심사결정문 (No. 10)



발신 : 심사위원회

날짜 : 2019. 4.28

수신 : 불가스레이싱팀

시간 : 16:55

본 심사위원회는 레이스디렉터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드라이버 및 팀 감독의 의견을 청취 한 뒤 영상분석(CCTV 등)을 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.

클래스 / 엔트리번호 / 드라이버 : ASA6000 / #95 / 김재현

발생시간 : 15:51

발생장소 : 19.3

해당세션 : 결승

위반내용 : 접촉 및 순위 변동

적용조항 : 2019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1부 스포츠운영규정 38.1.1

판 정 : 결승 기록 +5초 가산 페널티

판정이유 : #95 김재현 선수와 #10 조항우 선수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코너 진입 시 #95이 #10에게 공간을 확보하여 주지 않았음으로 상기와 같이 판정함

심사위원장 장 성 국

심사위원 황 태 영

심사위원 심 상 학

## 첨부 2 (2019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회 규정 38.1.1)

**SUPERRACE**

2019 SUPERRACE CHAMPIONSHIP

REGULATIONS

1부 스포츠운영규정

없이 최후미로 합류하며 스타트 순서는 피트라인에 정렬한 순서로 한다.

### 37. 사건 (INCIDENTS)

37.1 사건이라 함은 경기 중 다음과 같이 발생한 위반행위 혹은 판정을 위해 레이스 디렉터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.

- 37.1.1 34조에 의거하여 연습 혹은 경기의 중단이 필요할 때
- 37.1.2 본 스포츠운영규정, KARA자동차 경기 국내규정 및 ISC 규칙을 위반했을 때
- 37.1.3 스타트 반칙을 했을 때
- 37.1.4 충돌을 유발했을 때
- 37.1.5 차량이 트랙 밖으로 나갔을 때
- 37.1.6 정당한 방법으로 추월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진로방해 했을 때
- 37.1.7 피트라인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했을 때
- 37.1.8 예선이나 결승에서 **트랙 이탈** 시 심사위원회에서 고의여부와 이로 인한 이익이 있었는지를 판단 후 다음과 같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.

- a) 예선: **트랙 이탈로** 베스트 랩 달성 시 해당 랩 삭제
- b) 결승: **트랙 이탈로** 추월이 이루어질 경우 드라이브 스루 이상의 페널티

37.2 경기 중 사건이 명확하게 판정이 되지 않을 경우 세션 혹은 경기 종료 후 사건에 연루된 차량 및 드라이버를 조사할 수 있다.

37.3 심사위원은 사건에 관련된 드라이버에게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.

### 38. 방해행위 (DISRUPTIVE BEHAVIOR)

38.1 경기 중 드라이버는 다음과 같이 고의로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- 38.1.1 코너 선회 시 코너 안쪽의 차량은 바깥쪽에 차량이 있을 시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, 코스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금지된다.
- 38.1.2 선행차량 보다 후행차량이 빨라 추월을 시도할 시 선행차량은 2회 이상 진로를 변경할 수 없다.
- 38.1.3 코스 밖으로 벗어난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후속 차량을 먼저 보내고 코스로 복귀해야 한다. 코스 복귀 시 다른 차량에 방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시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.
- 38.1.4 **트랙이탈** 주행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
38.2 위험을 피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.

### 39. 세이프티카 (SAFETY CAR, SC)

- 39.1 SC에 관한 규정은 ISC규칙에 따라 적용한다.
- 39.2 SC가 발령되면 전 포스트는 SC보드와 함께 황색기가 제시되며, 각 신호등은 일제히 황색등이 점멸되고 SC가 투입된다. 이때 모든 참가차량은 서행해야 하며, 추월은 엄격히 금지된다.
- 39.3 SC는 선두 차량이 SC의 바로 뒤에 올 때까지 패스라이트(녹차등 점멸)로 후미차량을 한 대씩 SC앞으로 추월 하도록 지시한다.
- 39.4 패스라이트 신호를 받고 SC를 추월한 차량은 안전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대열의 최후미로 신속히 이동 합류해야 하며, 선두 차량이 SC의 바로 뒤에 붙을 때까지 대열변경은 계속된다.

30